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탐색

김태민¹ · 곽택용² · 이진호^{3*}

1. 용인대학교, 석사 2. 용인대학교, 교수 3. 용인대학교, 초빙교수

요약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방해요인과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탐색하여 태권도 품새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법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탐색과 대한체육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및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회에 걸쳐 반 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방해요인의 하위범주는 유관단체의 소통부재, 이해관계 충돌, 태권도 품새의 대중성, 경기판정의 모호함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간의 협력, 경기운영 및 이벤트 경기 개최, 공정한 경기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 기대효과로는 태권도 품새에 대한 이미지·인식개선, 시·도협회의 예산지원, 품새 선수 진로확대로 나타났다.

결론 과거부터 꾸준히 제시되었던 경기규칙과 경기판정의 모호함은 여전히 품새 대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해하는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댄스스포츠, 택견, 스포츠클라이밍 등의 사례를 거울삼아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 및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채택, 방해요인, 개선방안, 기대효과

I. 서론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종합경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강성철, 2023), 태권도 역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써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태권도는 1964년 겨루기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승인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정근영, 2011), 품새는 2020년 시범종목으로 신설되어 태권도인과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은 대한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으로,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 채점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말한다(임상록, 2014). 또한 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는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식종목으로 승격된 경기종목은 대표적으로 스쿼시(87회), 당

구(92회), 댄스스포츠, 산악(94회), 택견(103회) 등이 있다(대한체육회, 2023). 특히 택견의 경우 시범종목으로 9년간 분류되어 있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태권도 유관단체 및 태권도인들은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품새가 연이어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역시 경기종목 채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KTA는 2020년 10월 공인 품새 개발 TF팀의 첫 회의를 열어 공인품새의 난이도 개발, 심판 판정과 공정성 확보, 품새 경기기술발전과 활성화 등 태권도 품새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였다(무카스, 2020, 10월 20일). 특히 공인 품새가 가지고 있는 경기 판정의 공정성과 채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심판 수(윤수한, 김용은, 2020)를 늘리고 품새 심판의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심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기철, 김하영, 2021).

* dark4466@naver.com

하지만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도 태권도 품새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새 선수들의 처우와 선수 생활 이후 직업에 대한 안정성, 미래의 불확실성, 실업팀 창단 및 해체 등 태권도 품새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품새 최초의 실업팀이었던 완주 군청은 창단 초기 많은 관심과 큰 기대를 불러 모았으나 결국,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품새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품새 첫 실업팀은 해체되었다(곽택용, 2022, 7월 28일). 2023년 현재 품새 실업팀의 수는 3개 팀에 그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품새팀은 단 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태권도 겨루기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이후 도장 수련자 위주의 선수 구성에서 중·고·대학교 팀이 창설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남자 중·고·대학교 등에 국한된 팀 체제에서 군 대표팀, 회사와 관공서, 여자 대표팀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이경훈, 빙원철, 2009).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인정과 함께 종목의 저변 확대,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전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동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이인정, 이현경, 2020).

이에 정재환, 박찬우(2016)는 태권도 품새 역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품새 선수들의 처우개선과 진로의 확대, 실업팀 활성화 그리고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각 시·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품새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실정이다.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정재환, 박찬우(2016)가 유일하며 전국체육대회의 종목 채택의 의견을 제시한 논문은 2편에 그치고 있다. 상기의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발전과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의미가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선수와 지도자, 심판,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운영 계획과 전국체육대회 관련 정책 등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 품새가 시범종목으로 신설되어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스쿼시(87회), 당구(92회), 산악, 댄스스포츠(94회) 택견(103회) 등의 경기 종목들과 비교를 통해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방해요인과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탐색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태권도 품새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방해요인은 무엇인가?
2.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3.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II. 타 종목 정식종목 채택 사례

1.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승인 절차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운영에 관련된 규정서와 위원회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체육대회 정식 경기로 채택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승인이다. 그 이후 해당 종목에서 시범종목 채택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1차적으로 부별, 경기 방식, 경기 운영, 세부종목 등 자료 검토를 하게 된다. 다음 과정에서는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의결이 진행이 되고 의결이 성사된다면 마지막 과정인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시범종목 채택이 가능해진다.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을 참고하였다(대한체육회, 2023).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29조 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경기 종목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최소 5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평균 3년)한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 44조에 따라 평가회 개최 시 해당 회원 종목 단체에서는 해당 종목 선수 육성방안 성과 및 계획을 매년 제출·보고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대회 운영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순서대로 거쳐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및 정식종목 채택의 유무를 판

단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해당 종목의 경기 운영과 대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여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대한체육회, 2023). 구체적으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승인 절차

단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승인 절차
1	대한체육회 정가맹 승인
2	해당 종목협회 시범종목 채택 요청
3	대한체육회 대회 운영부 1차 자료검토
4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운영평가회 2차 검토
5	대한체육회 이사회 3차 검토 후 채택

2.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은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주관하는 경기 종목명으로 스포츠클라이밍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경우 1999년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활동하면서 대회의 개최 및 선수관리 등 한층 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제84회 전국체전에서 산악 종목은 전시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09년 남자 일반부가 스포츠클라이밍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다양한 국제·국내 경기 참가 및 개최와 더불어 등산교육원 설립 등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다(대한산악연맹, 2023). 이러한 노력 끝에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일반부는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부터 정식종목 승인을 받았다. 또한 스포츠클라이밍이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 되면서 여자 일반부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 2020 도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스포츠클라이밍 리드종목은 2020년, 볼더링 종목은 2021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리드종목과 볼더링 종목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은 올림픽 채택에 따른 종목군 변경으로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대한체육회, 2023)에 명시되어 있다.

3.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는 2007년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로 승인 되

었다.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승인 받은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선수선발과 지원에 관한 대안을 마련했다(이인정, 이현경, 2020). 그 결과 2009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대한체육회의 이사회회의 시기와 가장 근접한 기간의 시뮬레이션 경기 대회를 추가 개최를 계획하여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대안을 준비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에 적용될 심사방식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기존의 스케이팅 시스템은 물론이며,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위해 세계댄스스포츠연맹에서 규정한 공평화 방식의 대회 운영 및 심사 항목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5월 31일 대전광역시 선수권대회에서 전국체육대회 예비과정 경기 대회를 추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이인정, 이현경, 2020).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벤트 대회 개최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공정한 경기 결과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판 교육과 전문 지도자 자격 시험 및 연수과정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댄스스포츠는 2012년 9월 11일 정식종목으로 승인받았다.

4. 택견

대한택견협회는 1991년 1월 14일 법인 인가와 함께 체육회 가맹 신청서를 낸 이후 10년이 지난 2001년 대한체육회 가맹의 첫 단계인 인정 단체로 승인되었다.

그 이후 대한체육회 준 가맹 인정을 위해 2003년 체육회 이사회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택견 전문가들의 택견의 생존권 위협과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으로 준가맹 인정에 대해 반대하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이사들의 중재로 택견은 무사히 준가맹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에 택견협회에서는 정가맹 승인과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정하여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택견 단체들의 통합과 전국체육대회, 국제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종목별, 체급별 구분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동호인 종목을 신설하여 몇 년 동안 선수층 확보와 경기 운영 능력을 평가받았으며, 2011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려면 9개 이상의 시·도

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가맹으로 이행되어야 하지만 각 시·도체육회 및 협회의 이득과 계산으로 인해 택견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택견의 정식종목 채택은 매년 유보되었으며, 결국 대한민국 전통무예 택견 이일재(당시 회장)가 택견 단체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면서 2020년 택견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장경태, 2016).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방해요인 및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품새 선수와 지도자, 심판, 태권도 유관단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입장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비확률 표집방법 중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전국체육대회 유관단체에서 경기분야 운영과 정책을 담당하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각 1명으로 선정하였다. 선수, 지도자, 심판, 태권도학과 교수, 유관단체 직원들을 선정한 이유는 품새 종목 정식종목 채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품새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구성하여 총 12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5일~ 7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반 구조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구조화 면

Table 2. 연구 참여자

구분	나이	경력	현재직업
A	30대	대한체육회	직원
B	30대	대한태권도협회	직원
C	20대	2018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실업팀 선수
D	20대	2018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실업팀 선수
E	20대	2022전국체육대회 단체전 1등	실업팀 선수
F	20대	2022전국체육대회 개인전 1등	학교팀 선수
G	30대	2022전국체육대회 경기도 품새코치	태권도 품새팀 감독
H	30대	2022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 품새코치	태권도 품새팀 감독
I	50대	2022전국체육대회심판	대한태권도협회상임심판
J	50대	2022전국체육대회심판	대한태권도협회상임심판

담과 비 구조화 면담의 중간 형태이다(백옥현, 2006).

이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탐색과 대한 체육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및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족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과 관련된 정보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태권도학과 교수 1인, 스포츠 사회학 교수 1인, 스포츠 사회학 박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반 구조화 질문지를 제작하여 반 구조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 면담 중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의 직원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의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였지만 태권도 품새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견해는 정치적 문제와 내부 사정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구성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반 구조화 질문지

NO	질문내용
1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품새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 채택 방안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층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한 뒤,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였다. 심층면담은 라포 형성 과정을 거쳐 약 50분~60분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스마트폰의 내장되어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녹취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들은 분석을 위해 전사작업(transcription)을 하였고 도출된 자료 중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전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보내어 확인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확정된 연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분석은 수집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주제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감소시키면서 분석적 범주를 규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이다(Dey, 1993).

면담을 통해 나타난 최종자료를 귀납적 내용 분석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미 있는 패턴을 탐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Hatch, 2002). 수집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귀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통성에 따라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통합하였으며,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일반적 영역으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프로토콜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심층면담 프로토콜 및 내용

구성	내용
문제점	경기운영, 경기방식, 경기평가, 시·도협회 태도, 대한태권도협회 업무과다
개선방안	동일 경기규칙 개정, 경기운영 개편, 시·도협회 적극적인 협력
기대효과	인식개선, 실업팀 창단, 품새 선수 진로확대, 선수 및 지도자 관리체계 운영

4.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는 것에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삼각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연구자들을 참여시

켜 지나친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Denzin(1970)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학과 교수 1인, 스포츠 사회학 교수 1인, 스포츠 사회학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삼각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단위의 일반적 특성만을 수집하였으며, 모든 이름의 명기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동의를 구하였으며, 사전동의에는 연구에 대한 이득, 피해, 그리고 연구 철회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어떠한 이득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료에 대한 활용을 거부할 시, 수집된 자료는 즉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될 것을 명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품새 경기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주제적 행위자인 연구참여자들의 견해를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방해요인과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화하는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4개의 개념과 1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3개의 범주가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1.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방해요인

1) 유관단체의 소통부재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규정문 29조 4항에 따르면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경기 종목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답하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9조 4항의 경우 기

Table 5. 범주화

	원자료	세부사항
방해요인	유관단체의 소통부재	전국체육대회 규정 혼란 기관간의 협업 및 업무처리 미흡 대한태권도협회의 소극적 태도
	이해관계 충돌	타 종목의 반발 각 시·도 협회의 파벌 싸움 겨루기와 품새의 대립
	태권도 품새의 대중성	공인품새의 지루함 경기규칙의 이해부족
	경기 판정의 모호함	심판의 주관적인 판정 태권도 품새의 변별력
대처방안	기관 간의 협력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원활한 소통 협업과 순차적 업무처리
	경기운영 및 이벤트경기 개최	경기운영 개편 공인품새의 경기방식 개편 새로운 경기방식 적용 시범대회
	공정한 경기결과	품새 경기규칙 개정 정기적인 심판교육 심판역량 강화
	태권도 품새에 대한 이미지·인식개선	전문스포츠로서의 인정 수련생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
기대효과	시·도 협회의 예산지원	훈련환경 및 체계적인 훈련 지도자 처우개선
	품새 선수 진로 확대	실업팀 활성화 초·중·고 엘리트 학교팀 증가

존 정식종목이 8개 시·도 미만 참가로 시범종목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었다. 또한 신규 종목의 정식 종목 전환 시 해당 종목 단체에서 매년 개최되는 운영평가 회에 요청을 제시할 경우, 제29조 5항에 따라 종목 단체의 신청, 평가회, 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전국체육회 규정서를 보면 시범종목은 2년이 경과 되어야 정식종목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새는 작년 처음으로 진행됐었고, 올해까지 지나야 2년이 경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전국 체육대회 관련 규정은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대한태권도협회 직원)

“전국체육대회규정문에 있는 29조 4항의 내용은 정식종목에서 시범종목으로 강등된 종목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품새는 매년 대한체육회의 정식으로 정식종목 채택 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A(대한체육회 직원)”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 단체 간의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전국체육대회 규정서에 대해 일반인들과 대표단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규정들이 있었으며, 대한태권도협회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주관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체의 소통의 부재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큰 걸림돌이라 판단된다.

2) 이해관계 대립

전국체육대회는 각 종목마다 메달의 점수가 정해져 있고 점수의 합계를 통해 각 시·도의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태권도의 경우 이미 겨루기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새까지 정식종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타 종목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태권도 내부에서 전국체육대회 메달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겨루기와 품새 간의 다툼과 각 시·도 협회에서의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 또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있어 큰 문제라고 사료된다.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봐요. 지금 태권도 종목 안에 겨루기와 품새가 두 종목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려고 하는데 메달의 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태권도 종목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타 종목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 종목에서도 세부종목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려고 시도할 거예요. G(품새팀 감독)”

“다른 종목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겨루기의 메달을 축소하고 품새 메달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렇게 되면 태권도 내부의 파벌싸움 혹은 시·도 협회 간의 정치싸움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H(품새팀 감독)”

3) 태권도 품새의 대중성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없는 이유로 대중성이 부족하고 관중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품새 종목이 전국체육대회 대학부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학부를 제외한 고등부와 일반부의 경우는 품새 선수들만이 즐기는 축제와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공인 품새의 특성상 같은 동작이 반복되어 관중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김정환, 김태민, 이진호, & 곽택용, 2021; 안진영, 2011) 태권도 품새의 경기 방식과 경기 규칙들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기철, 2021)들이 있어 관중들의 흥미 유발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겨루기처럼 치고받고 하는 재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아질 거 같은데 너무 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니까 30분이면 지루하고 안 보게돼요. C(실업팀 선수)”

“저는 품새 경기라는 것이 품새 선수들만의 축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학부는 뭔가 그래도 긴장감도 있고 고난도 기술이나 작품을 보고 호응이 있어요. 반면에 고등부나 일반부는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냥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만의 축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E(실업팀 선수)”

4) 경기판정의 모호함

김상범, 정지규(2021)는 심판 판정에 있어 인간의 한계라는 내부적인 측면과 사회관계망을 통한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품새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경기 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선수, 지도자, 관중들은 경기 판정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고 있어 판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판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축구나 농구같이 스코어가 정확하게 나오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품새는 그 기준이 애매해서 경기판정에 대해 늘 사건 사고가 있는 거 같아요. F(학교팀 선수)”

“경기 판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 같아요. 사실 품새 특성상 심판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게 많다고 봐요. 정확성과 숙련성으로 나뉘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지도자들 역시 경기 판정에 대해 억울할 때가 많은게사실이에요. G(품새팀 감독)”

2.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대처방안

1)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원활한 소통

태권도 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규정 29조 4항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어려울 거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게 된다면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으로 태권도 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체육대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보니 관련 규정 및 내규 부분은 저희도 문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된다면 태권도 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대한태권도협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려면 대한태권도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D(실업팀 선수)”

2) 경기방식 개편 및 이벤트 대회 개최

태권도 품새 역시 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국제대회 경기 방식을 채택하여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가 합쳐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선보이고 있는 5인조 단체 품새 경기 방식을 도입하여 (총 3라운드로 진행하고 1경기 개인전, 2경기 패어, 3경기 단체로 진행 후 총 점수 합산) 승·패를 가리지는 의견도 함께 도출되었다.

“우선 전국체육대회의 목적은 국제경기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품새는 아시안게임의 경기 규칙과 경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제 대회와 국내의 경기 규칙을 통일하여 진행한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체육대회의 필요성에 설득력이 더해질 거 같습니다. I(품새 상임심판)”

“2017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진행했던 5인 단체 경기는 정말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경기는 첫 품새의 점수에 따라 쉽게 승·패를 예상할 수 있지만 5인 단체의 경우 3라운드를 걸쳐 각 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되니 신선하기도 했고 겨루기와 달리 품새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단점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파워 태권도처럼 품새도 이벤트 경기를 개최했으면 해요. H(실업팀 선수)”

타 종목인 댄스스포츠의 경우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공정한 방식과 함께 전국체육대회에 적용될 심사방식 준비의 일환으로 스케이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국체육대회예비과정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이인정, 이현정, 2020). 이와 같은 노력이 댄스스포츠가 현재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써 채택될 수 있는 배경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태권도 품새 역시 다양한 방법의 경기 방식을 구성하여 이벤트 경기를 개최한다면 품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공정한 경기결과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품새의 문제점인 판정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 개정과 주기적인 심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응답하였다. 또한 피겨와 자유 품새의 점수 체계처럼 품새 안의 기술을 난이도별로 채점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선수들의 기술에 대한 변별력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일반인들이 품새 경기를 봤을 때 점수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품새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승·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품새의 특성상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판정에 의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심판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납득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C(실업팀 선수)”

“품새의 점수 채점의 방법은 감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겨처럼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난이도별 경기용 품새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경기용 품새에서 자유 품새의 기술처럼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채점을 하게 되면 변별력도 생기고 판정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 거라 봐요. J(품새 상임심판)”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품새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품새 점수 채점 방법과 심판의 개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수환(2008)과 윤수한(2020)은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은 경기의 핵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판단력을 바탕으로 외압이나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양심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택견(장경태, 2016), 댄스스포츠(이인정, 이현정, 2020) 등 다양한 종목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 운영을 위해 각종 단체들은 경기규칙 개정과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한 정기적인 심판 교육을 진행하였다.

과거 겨루기 종목은 불합리한 심판 판정 문제로 인해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퇴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자호구의 도입과 비디오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윤수한, 김용은, 2020; 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그 결과 현재까지도 겨루기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품새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심판의 주관적인 특성을 최대한 배제 시키고 객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심판 교육을 통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심판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3.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따른 기대효과

1) 태권도 품새에 대한 이미지·인식개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게 된다면 학부모와 수련생들에게 품새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정식종목 채택과 동시에 진정한 전문 스포츠로서 거듭나고 품새 수련의 목적이 국기원 심사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 스포츠로서의 목적까지 추가되어 품새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품새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거 같아요. 아직 품새는 학부모들과 수련생들이 이해하기에 수련과 국기원 심사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스포츠구나 생각할 거 같아요. F(학교팀 선수)”

“그동안 생활체육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봐요.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엘리트 스포츠이자 전문적인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J(품새 상임심판)”

2) 시·도협회 및 지역 체육회 지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및 각 시·도협회의 예산 지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전국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써 연금 지급, 포상금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인 보상과 함께 남자 선수의 경우 상무 입대와 관련하여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체육회에서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 간의 고른 선수층이 확보될 것이라 답변하였다.

“아무래도 시·도협회의 지원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겨루기만 해도 지원금이나 실업팀 선수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G(품새팀 감독)”

“이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경쟁이 있어서 품새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게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지원을 많이 해줄 거 같아요. 시범경기일 때는 종합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무관심한 건데 정식종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바뀔 거라 예상해요. I(품새 상임심판)”

댄스스포츠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예산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 선수층 확보와 육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이인정, 이현정, 2020). 따라서 태권도 품새 역시 다양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적인 선수 육성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된다.

3) 품새 선수 진로 확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은 품새 선수의 진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많은 대학 품새 선수들은 선택의 폭이 좁은 진로 문제와 선수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고 응답하였다.

“품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품새 선수의 끝은 도장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도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분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국체육대회만 들어가면 겨루기처럼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많이 생길 거 같아요. C(실업팀 선수)”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실업팀도 증가하고 직업적인 종류 군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E(실업팀 선수)”

대학 운동선수들은 막연히 미래에 꿈꾸고 있는 목표로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프로선수, 전문 지도자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진로 방향 및 취업 선택의 폭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지호, 2017; 안진영, 2017). 특히 태권도 품새의 경우 도장에서 선수 육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 도장 이외에 구체적인 진로와 직업군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 품새 선수들이 운동 중도 포기를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안근아, 안진영 2017).

따라서 품새가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실업팀 활성화에 따른 품새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 운동부(초·중·고)의 증가로 인해 도장에 국한되어 있던 진로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선수들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하고 경기 분야의 발전과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품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의 방해요인 및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방해요인은 ‘유관기관의 소통 부재’, ‘이해관계 충돌’, ‘태권도의 대중성’, ‘경기판정의 모호함’으로 나타났다.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 두 유관단체의 소통의 부재가 있었으며, 타 종목들의 반발과 겨루기와 품새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권도 품새의 대중성 부족과 경기판정의 모호함 등의 내부적인 문제를 태권도 품새의 발전과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품새의 내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하였다.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태권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태권도 품새의 정식종목 채택의 대처방안은 기관 간의 협력, 경기 운영 및 이벤트 경기 개최, 공정한 경기 결과로 나타났다.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 두 기관 간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권도 품새의 지루한 경기 방식과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5인 단체전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경기 방식을 고려하여 이벤트 경기를 열어 대중의 관심과 태권도 품새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난해한 품새 경기 규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전문스포츠로서 공정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심판 교육을 병행하여 심판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됨으로써 불러오는 기대효과는 ‘태권도 품새에 대한 이미지·인식 개선’, ‘시·도 협회의 예산 지원’, ‘품새 선수 진로 확대’로 나타났다. 품새 경기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의 필요성은 현재 품새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품새 선수의 미래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각 지역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각 시·도의 홍보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어 시·도협회와 체육회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예상되며 더 나아가 품새 수련인구 증가와 두꺼운 선수층 확대, 가장 큰 문제인 품새 선수들의 대학 졸업 이후 진

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태권도 품새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경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태권도 품새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며,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위해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태권도인들 역시 품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면 태권도 품새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많은 관객들과 태권도인들에게 사랑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경기 종목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댄스스포츠, 택견, 스포츠클라이밍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경기 종목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태권도 품새 역시 타 종목의 사례를 거울삼아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활용한다면 태권도 품새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써 활약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인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태권도 품새 경기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대처방안과 해결방안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들과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태권도 품새 경기 발전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시각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References

- 강성철(2023).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학교체육 행정가의 인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교.
- 곽택용(2022, 7.28.). 곽택용의 태권도 다음_품새전국체전정식종목채택시급. 무카스, 2023년 4월 25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8517>
- 권영기(2020, 10.20.). 태권도‘품새’도 전국체전 정식종목 될 수 있을까?. 무카스, 2023년 4월25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7679>
- 김상범, 정지규(2021). 스포츠현장에서 인공지능 판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학적 고찰. *한국스포츠학회지*, 19(4), 781-788.
- 김윤미, 이승훈(2017). 스포츠에서의 공정성 문제: 자연성과 인위성.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779-787.
- 김정환, 김태민, 이진호, 곽택용(2022). 자유 품새 선수의 부상기술과 부위, 발생 요인. *대한무도학회지*, 24(3), 67-76.
- 김지호(2017).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운동중도탈락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희진(2021). 생활체육 태권도 품새수련자의 전문체육 전환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대한산악연맹(2023). 연혁. (사)대한산악연맹(kaf.or.kr).
- 대한체육회(2023).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대한체육회) 정관·규정(sports.or.kr).
- 방인주, 안근아(2019). 태권도 자유 품새 경기규칙에 관한 개선방안-회전 발차기를 중심으로. *무예연구*, 13(3), 145-161.
- 백옥현(2006). 면접법. 서울: 교육과학사.
- 안진영(2011). 태권도 품새경기의 세계화 방안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윤수한, 김용은(2020).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품새경기의 방향 탐색.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167-189.
- 이경훈, 병원철(2009). 태권도의 전통사상과 현대적 의미에 관한 고찰. *대한무도학회지*, 11(2), 93-105.
- 이기철(2021). 태권도 전문가가 인식하는 미래 태권도 품새경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기철, 김하영(2021). 태권도 품새경기의 발전방향을 위한 태권도 전문가 인식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0(4), 665-674.
- 이수관(2008).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존속을 위한 겨루기 경기규칙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의진(2022, 10.13.). [전국체전] 시범종목태도 자리지킨 설기관 “보디빌딩, 쇼보단 스포츠로”. *연합뉴스*, 2023년 4월 26일 발췌.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027700007?input=1195m>
- 이인정, 이현정(2020). 댄스스포츠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의 성과와 의미. *체육사학회지*, 25(2), 97-112.
- 임상록(2014).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경기운영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민우(2017). 태권도 자유 품새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 8(4), 379-400.
- 전운수(2004). 종합체육대회의 가치와 발전을 위한 담론.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65-72.
- 정근영(2011). 태권도 경기화 과정에 대한 역사 철학적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용원, 이재봉(2019). 올림픽 정식종목화를 대비한 품새 경기규칙의 개선방안. *세계태권도문화학회*, 10(1), 47-71.
- 정재환, 박찬우(2016).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93-102.
- 최광근, 장권(2015). 태권도 경기화의 역사적 배경과 언론사적 의미: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20(4), 49-64.
- Denzin, N, K.(1970).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Dey, I.(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A User Friendly Guide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Routledge.
-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Suny Press.

Exploring the official event of the Taekwondo Poomsae National Sports Festival

Kim, Tea-Min¹ · Kwak, Taek-Yong² · Lee, Jin-Ho³

1. Yong In University, Master's Course 2. Yong In University, Professor 3. Yong I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aekwondo Poomsae by exploring the obstacles, countermeasures, and expected effects of Taekwondo Poomsae's adoption of official sports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Method Explor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official events for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alyzing the overall contents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specified by the Korean Sports Council, and conducting two semi-structured interview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Results First, the subcategories of obstruction factors are the lack of communica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conflicts of interest, popularity of Taekwondo Poomsae, and ambiguity of game judgment. Secon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holding game operations and event games, and fair game results. The last expected effects are improving the image and awareness of Taekwondo Poomsae, budget support from the city and provincial associations, and expanding the career path of Poomsae players.

Conclusion The ambiguity of game rules and game decisions, which have been consistently presented in the past, is still appearing in the Poomsae competi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ors that hinder thi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sented and utilized by mirror examples such as dance sports, Taekkyeon, and sports climbing.

Keywords Taekwondo Poomsae, National Sports Festival Adoption, Obstruction Factors, Improvement Measures, Expected Effects

논문투고일: 2023.08.07.

논문심사일: 2023.08.28.

심사완료일: 2023.09.25.

논문발간일: 2023.09.30.